

조선시대 출토 견직물의 특성

장 현 주

동명정보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전임강사

Characteristics of the Excavated Silk Fabrics of Chosun Period

Hyun-Joo Jang

Full-time Lecturer, Dept. of Fashion Design, Tongmyoung Information Univ.

(2002. 5. 24 접수 : 2002. 10. 11 채택)

ABSTRACT

An empirical review on silk fabrics of the Chosun period showed that they varied in kind and design according to their uses. Thu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ssify the fabrics into excavated and temple fabrics according to their uses and collected places and then to examine characteristics of each type.

Excavated fabrics were most accounted for by tabby fabric, followed by satin, twill, leno and gauze and union cloth. Tabby fabric was most used throughout the Chosun period, followed by satin. This is supported by many literary records. Concerning excavated dresses of the same period, tabby fabric, especially Ju(紬) was the main material, followed by satin. Leno and gauze fabric was much less used than in the Koryo period.

Among excavated dresses surveyed in this study, none was made of compound woven fabrics such as Brocade. Other excavation reports said that Brocade had been used for a cuff of coat in few cases, if any. Tabby fabric was widely used for both the right side and lining while twill and satin fabrics were mainly adapted to weave the right side because they had luster higher than the former, smooth sense of touching and unique designs.

Key words: Excavated fabrics(출토직물), fabrics collected in temples(사찰직물), tabby fabrics(평직물), compound woven fabrics(중조직물), leno and gauze fabrics(익직물).

I. 서 론

출토직물은 국내 각 지역에서 선조의 분묘 이장 시 관내에서 복식과 함께 발견되는 직물로서 死者를 위해 새로 마련된 新衣 즉 壽衣의 소재 및 보공품으로 사용된 평상복의 소재와 옷감 등을 말한다.

최근까지 조선시대 출토복식을 연구하면서 아울

러 출토직물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¹⁾. 그러나 섬유류 유물은 금속과 같은 유물에 비하면 보존이 어려워 오랜 세월이 경과함에 따라 직물 본래의 색상 및 재질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특히 시대가 올라감에 따라 직물 본래의 형태대로 남아 있기 보다는 다른 금속제의 유물에 부착한 상태로 일부만이 남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이렇게 현존하는 출토직물은 불복장 직물을



비롯한 사찰직물에 비하면 오염의 부착 및 직물의 손상이 훨씬 심한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은 특성을 가진 출토직물을 고찰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조선시대 출토 견직물을 실증적으로 고찰한 결과 유형별, 시기별 특성 및 문양에 나타난 특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 결과를 선행 연구된 조선시대 출토 직물의 특성과 비교하고 불복장직물 등의 사찰직물의 특성과도 비교하였다. 조선시대의 출토 견직물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직물의 약화 및 경화현상이 일어나 본래의 견직물이 가지는 광택과 유연한 재질감은 상실하지만 그 이전의 시기보다는 훨씬 직물 본래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편이다. 그러므로 비교적 많은 실증적 자료를 접할 수 있는 조선시대 유물부터 그 연구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II. 실증유물의 출처

본 연구에서 조사한 조선시대 각 시기²⁾별 출토직물의 출처는 <표 1>과 같다.

III. 출토 견직물의 특성

이상의 출토직물을 실증적으로 고찰한 결과 각 유형별 출현율은 다음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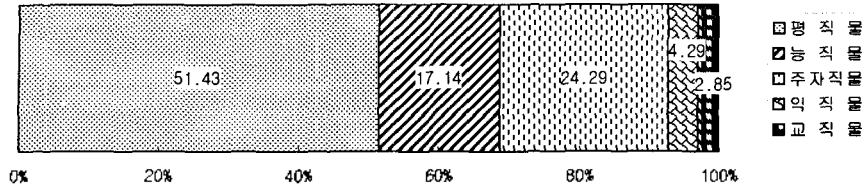
<그림 1>에 의하면 평직물의 비중이 51.43%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 주자직물(24.29%), 능직물(17.14%), 익직물(4.29%), 교직물(2.85%)의 순이다. 그리고 중조직의 특수직물은 1점도 없다.

1. 유형 특성

<표 1> 본 연구에서 조사한 각 시기별 출토직물의 출처

시기	출 처	묘주 및 연도	출토지	관직 및 계급	현소장지 및 보고서	소계
제1기	恩津宋氏 出土織物	恩津宋氏 (1554~1594)	大田市 大德區 宋村洞	宣祖15年(1582)에 司馬兩試에 합격하여 進士벼슬 (양반계층)	부산대학교	7
	全州李氏 出土織物	(1500년대)	.	.	.	23
제2기	慶州李氏 出土織物	慶州李氏 (?~1684)	全羅南道 靈巖郡 西湖面 長川里 야산	李氏의 남편 全澤은 仁祖 17年(1639)에 등과 肅宗 1年(1675)에 안동판관 肅宗 2年(1676)에 해미현감 등 관직	광주 민속박물관	13
제3기	安東金氏 出土織物	金洙根의 7명 (1800년대)	현재:京畿道安 山市一洞山 24번지 발굴당시:京畿 道 華城郡 半月面 一里	조선후기 명문가문 (외척세력)	은양 민속박물관 (안동김씨 분묘발굴 조사보고서, 1989, 은양민속 박물관)	27
총 계						70

2) 제1기(14~16세기) : 1392년부터 임진왜란전 16세기까지
 제2기(17~18세기초반) : 임란후 17세기부터 18세기초반까지
 제3기(18세기중반~19세기) : 18세기 중반 영·정조대부터 19세기까지
 권영숙, 이주영, 조선초·중기 여자 장의제도 -임란전·후 출토유물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가정대학 연구
 보고 제21집 (1996), p.122.



〈그림 1〉 출토 견직물의 유형별 출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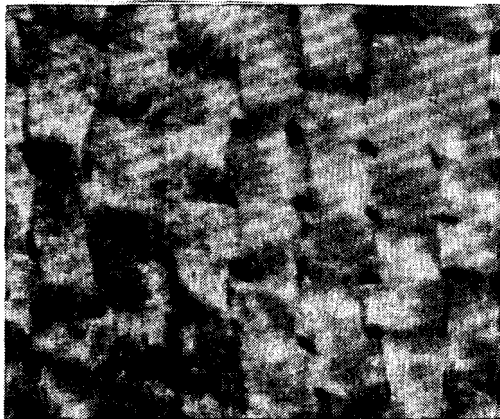
출토직물의 각 유형별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평직물

본 연구 결과 평직물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여기에는 紬, 絹, 絹 3가지 유형이 있다. 총 36점의 평직물 중에서 紬직물이 34점으로 가장 많으며 그 외 絹 1점, 絹 1점이 있다. 사찰직물에서는 주자직물이 가장 높는데 비해³⁾ 출토직물에서는 조선시대 전 시기 가장 널리 사용되었던 紬직물이 가장 많

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 중에서 특히 絹의 비중이 낮는데 그 이유는 직물자체가 잠자리 날개같이 결이 섬세하고 가볍고 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물리 화학적인 열화과정을 거쳐 출토되는 직물에는 많이 발견되지 않는 것 같다. 〈표 2〉는 출토직물 중 평직물의 용도이다.

평직물은 저고리, 치마, 포, 속바지 등의 걸·안감에 모두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석주선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출토복식⁴⁾에 사용된 직물 중 明紬, 絹, 絹라고 명명한 평견직물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이것도 역시 걸·안감에 모두 사용되었다. 〈그림 2〉는 恩津宋氏 출토의 紬직물이며, 〈그림 3〉은 絹직물이다.



〈그림 2〉 紬(제1기)-恩津宋氏 출토직물

2) 능직물

출토직물의 능직물에는 半地浮紋綾, 半地綾紋綾, 綾地綾紋綾의 3가지 유형이 있으며 이 중에서는 綾地綾紋綾의 비중이 가장 크다. 〈표 3〉은 출토직물 중 능직물의 문양과 용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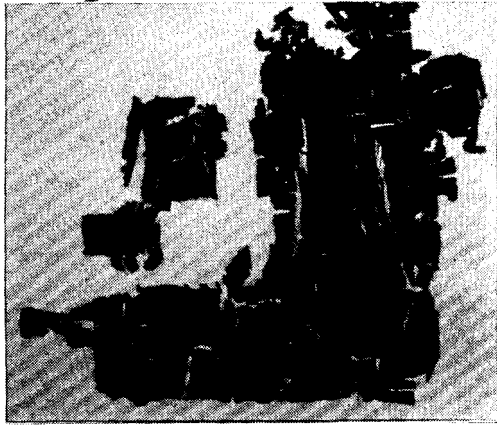
능직물은 제2기의 떡목의 안감에 사용된 平地綾紋綾 1점을 제외하고는 동다리, 반비, 저고리, 치마, 장의 걸감에 주로 사용되었다. 평직물이 걸, 안감에 두루 사용된 것에 비해 능직물은 평직물보다 광택이

〈표 2〉 출토직물 중 평직물의 용도

시 기	제1기			제2기
	絹(N=1)	紬(N=25)	絹(N=1)	紬(N=9)
용 도	袍	저고리, 치마의 걸·안감, 치마허리, 이불, 직물조각 등	袍	명주겹치마 걸·안감, 떡목걸감, 지요걸·안감, 이불걸감, 겹장의 안감, 접유속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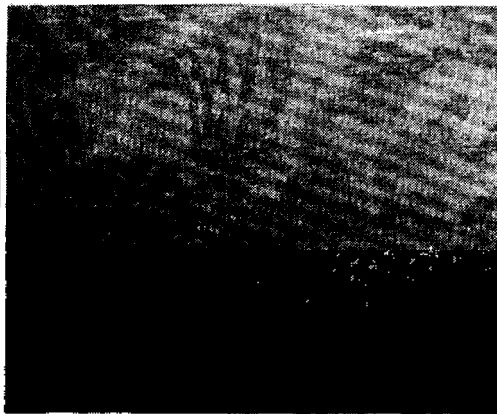
3) 장현주, “조선시대 견직물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9), p.131.

4) 석주선기념박물관, 전계서(1988~1999).



<그림 3> 綃(제1기)-恩津宋氏출토직물

좋으며, 촉감이 부드럽고, 문양도 있으므로 걸감에 주로 사용된 것이라 생각된다. 주로 사용된 문양은 모란, 국화, 연화, 보상화, 당초 등의 대화문과 소화문의 식물문양이 많으며, 그외 쌍봉문, 문자문, 기하학문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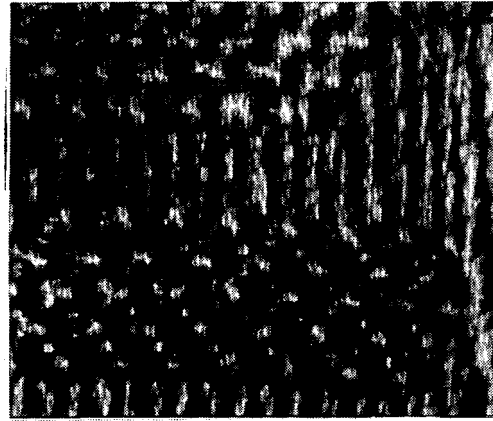


<그림 4> 綾地綾紋綾(제2기)-慶州李氏출토직물

<표 3> 출토직물 중 능직물의 문양과 용도

시 기	제2기		제3기	
	平地綾紋綾(N=1)	綾地綾紋綾(N=1)	平地浮紋綾(N=3)	綾地綾紋綾(N=7)
문 양	◇, 花	쌍봉, 당초, 모란, 연화, 보상화	小花	◇, 壽, 花紋, 물방울, 鱗
용 도	떡목안감	장의걸감	동다리, 반비	저고리, 치마

5) 장현주, 전개서(1999), p.134.



<그림 5> 綾地綾紋綾조직(제2기)-慶州李氏출토직물

<그림 4>~<그림 5>는 경주이씨 출토 綾地綾紋綾으로 직물표면에 쌍봉향, 당초, 국화, 모란, 연화, 보상화 등이 다양하게 마치 한폭의 풍경화처럼 1단위씩 직문되어 있으며 문양 1단위의 길이는 18~20cm 내외이다.

3) 주자직물

본 조사의 출토직물에는 無紋綾이 1점도 없으며, 紋綾이 17점 있다. 사찰직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無紋綾보다 紋綾의 비중이 훨씬 높다⁵⁾.

<표 4>는 출토직물 중 주자직물의 문양과 용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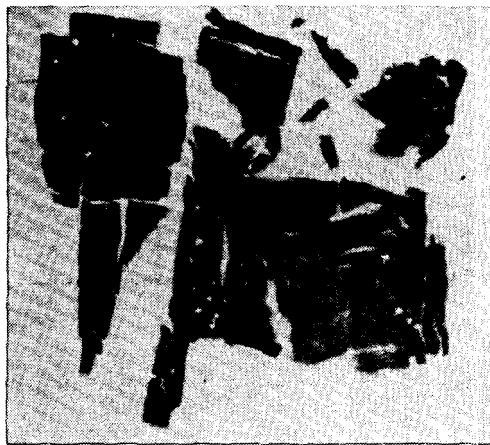
紋綾직물은 대부분 걸감 즉 포류, 저고리, 원삼 등에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제1기의 紋綾에는 雲紋, 犀角, 卍 등의 賣紋이 모두 사용되었으며, 제3기의 紋綾에는 卍, 호로병, 犀角, 錢寶, 壽寶, 雲紋 등의 賣紋과 복숭아, 석류문 등의 식물문, 壽와 같은 문자문이 사용되었다. 이것은 석주선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紋綾 직물의 경우와 거의 같으며 이 경우에도

〈표 4〉 출토직물 중 주자직물의 문양과 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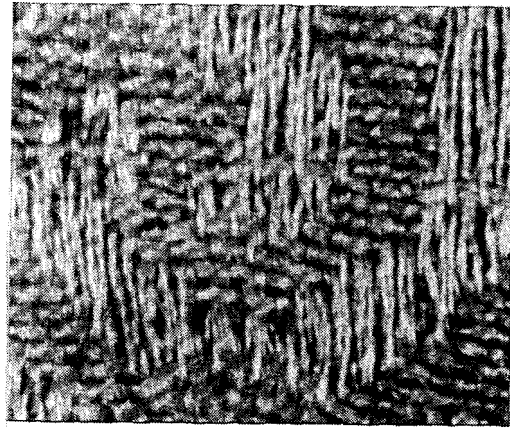
시 기	제1기	제3기
직물명	紋緞(N=2)	紋緞(N=15)
문 양	寶紋(雲紋, 犀角, 卍)	寶紋, 花紋, 壽, 복숭아, 석류
용 도	포류, 명정	저고리, 단령, 원삼, 원삼띠, 기타 옷감

저고리, 치마, 포류, 이불 등의 걸감에 주로 사용되었으며, 특히 여자의 수의에는 작은 꽃무늬가 직조된 花紋緞이 많이 사용되었다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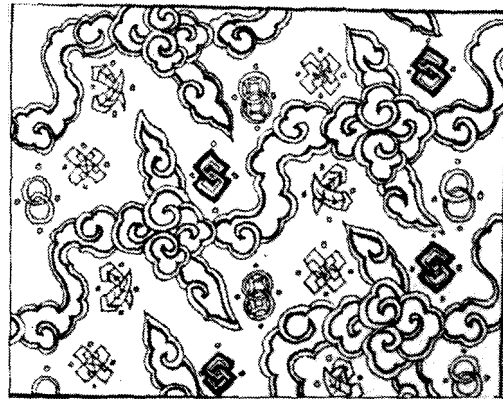
〈그림 6〉, 〈그림 7〉은 恩津宋氏 출토 紋緞직물로서 雲紋, 犀角紋, 如意紋 등의 寶紋이 사용되었으며 바탕조직이 3매 위능직, 무늬조직이 8매 경주자직으로 제작된 것이다. 조선전기에는 단직물이 대부분 3매 주자직의 조직으로 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16세기에 이미 8매 주자직으로 제작한 緞직물이 출토된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紋緞직물은 바탕조직이 주자직, 무늬조직이 능직 혹은 평직인데 비해 이 유물은 이와 서로 반대이며 織紋된 문양 가운데 雲紋의 1완전문양의 크기가 8×7cm로서 매우 작고 섬세하게 織紋되어 있다.



〈그림 6〉 紋緞(제1기)-恩津宋氏출토직물



〈그림 7〉 紋緞조직(제1기)-恩津宋氏직물



〈그림 8〉 紋緞(제3기)-安東金氏출토직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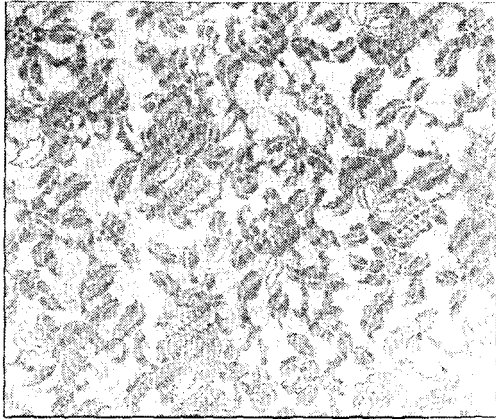
〈그림 8〉은 안동김씨묘에서 출토된 단령의 직물로서 如意雲이 수문양이며 사이에 卍字, 方勝, 犀角, 錢寶, 壽寶 등이 있는 寶紋緞이다. 그리고 〈그림 9〉는 도류불수 紋緞직물이다.

4) 익직물

출토직물에는 익직물이 모두 3점으로 그 비중이 특히 낮으며 無紋羅, 紋紗의 2종류가 있다. 석주선 박물관에 소장된 출토직물⁷⁾에서도 익직물은 극히 소량으로 제1기 0.5%, 제2기 5%, 제3기 16%이며 제3기로 가면서 비중은 증가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그 비중이 극히 낮다.

6) 석주선기념박물관, 한국복식 8호, (1991).

7) 석주선기념박물관, 전개서(1988~1999).



<그림 9> 紋緞(제3기) - 安東金氏출토직물

익직물은 경사들이 제직중에 1本 또는 數本の 위사 사이에서 서로 교차하여 조직되며 그 교차한 곳에는 틈을 만들어 투공효과가 생긴다. 대체로 직물의 피복도인 cover factor값이 낮으며 두께 또한 매우 얇은 것이 특징이다. 평직물의 絹와 마찬가지로 익직물은 오랜 시간이 흐르는 동안 지하에서 여러 가지 물리·화학적인 열화과정상 원상태로 보존되기는 거의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출토직물에는 처음부터 익직물 즉 紗, 羅의 사용이 드물었거나 아니면 오랜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부식되었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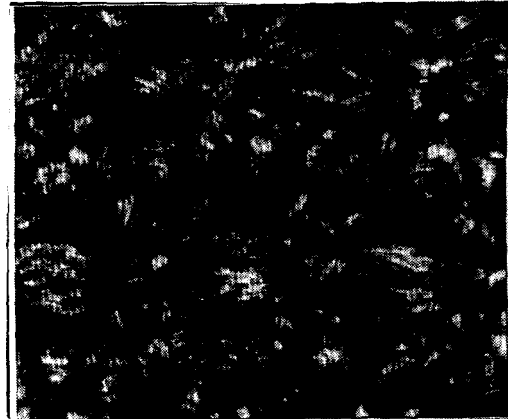
3점의 익직물은 치마, 저고리 고름 그리고 현훈에 사용되었다. 그리고 석주선 소장직물 중 익직물은 심의, 철릭, 전복, 銘旌, 현훈 등의 용도로 사용되었다.

출토직물 중 익직물의 문양과 용도는 <표 5>와 같다.

<그림 10>은 제1기 全州李氏 출토직물로서 저고리 고름에 사용된 無紋羅직물이다. 이 직물은 4가닥의 경사가 한 조가 되어 복잡하게 얽혀 있는 4經紋羅직

<표 5> 출토직물 중 익직물의 문양과 용도

시 기	제1기		제3기	
	직물명	無紋羅(N=1)	紋紗(N=1)	無紋羅(N=1)
문 양		기하학문(줄무늬)		
용 도	저고리 고름	치마	현훈	



<그림 10> 無紋羅(4經紋羅)-全州李氏출토직물(제1기)

물로서 고려시대에 특히 많이 유행했던 4經紋羅직물이 조선시대 제1기까지 계속 존재했음을 알 수 있는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5) 교직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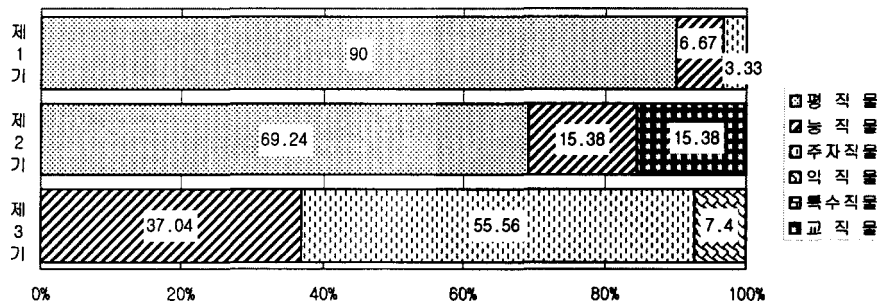
제2기 경주이씨 출토직물에 2점이 있으며 이 2점은 모두 장의 안감의 용도로 사용되었다. 1점은 경사에 견사, 위사에 면사를 사용한 교직물로 명주 접유장의 안감에 사용된 것으로 이 교직물은 경사가 위사보다 더 치밀하여 외관은 견직물의 紬와 비슷하게 느껴진다. 그리고 또 1점은 경사에 면사, 위사에 견사를 사용한 교직물로 무명 접유장의 안감에 사용된 것으로 경사의 밀도가 위사의 밀도보다 더 치밀하고 면사인 경사는 물론이며 견사인 위사도 굵은 편으로 외관은 무명과 비슷하게 느껴진다.

2. 시기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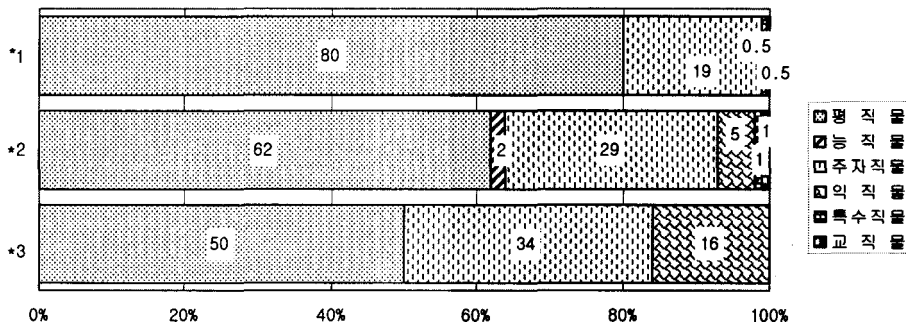
각 시기별로 유형별 출현율을 보면 <그림 11>와 같다.

<그림 11>에 의하면 제1기, 제2기에는 모두 평직물의 비중이 다른 유형의 직물보다 월등하게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제3기는 주자직물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지며 오히려 평직물은 보이지 않는데 이것은 安東金氏 墳墓 출토직물의 일부만 조사한 결과이며, 보고서⁸⁾에는 평직물의 紬종류가 다양하게 사용되었다고 한다.

석주선 기념 박물관에 소장된 조선시대의 출토복



〈그림 11〉 본 연구에 나타난 시기별 출토 견직물의 유형별 출현율



*1: 제1기 출토견직물의 유형별 출현율(한국복식 6, 7, 9, 11, 17호)

*2: 제2기 출토견직물의 유형별 출현율(한국복식 6, 8, 10, 11, 13, 14, 15, 17호)

*3: 제3기 출토견직물의 유형별 출현율(한국복식 12호)

〈그림 12〉 석주선 박물관 소장품을 중심으로 살펴 본 시기별 출토 견직물의 유형별 출현율

식에 사용된 직물을 보고서를 참고하여 각 시기별로 유형별 출현율을 알아보면 〈그림 12〉와 같다.

〈그림 3〉에 의하면 전 시기 평직물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그 다음이 주자직물이다. 이것은 본 연구에서 고찰한 조선시대 출토 견직물에 나타난 결과와 같은 것으로 출토복식에는 평직물이 가장 널리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은 주자직물의 사용이 많았으며 의직물의 사용은 고려시대에 비해 훨씬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조선시대는 緞의 시대로서 주자직으로 제작하는 팽택있고 화려한 緞직물이 크게 발달하는 반면에, 경사가 서로 얹혀서 투공효과가 있으며 얇고 비치는 감의 의직물은 고려시대 만큼 발전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조사에서 출토복식에는 織錦類 등의 중조직 직물이 1점도 없었지만 제1기의 출토 보고서⁸⁾에 의하면 저고리의 끝동 부분에 織錦이 사용되었다고 한다. 물론 그 織錦의 출현율은 0.5%로 극히 낮아서 유행했다고는 볼 수 없지만 장식적인 효과를 위해 깃, 수구 등의 일부분에 織錦 등 이층직의 기법으로 제작한 직물도 출토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문양 특성

출토직물 중 문양이 있는 능직물, 주자직물, 의직물을 문양의 종류에 따라 분류하면 〈표 6〉과 같다. 〈표 6〉에 의하면 출토직물은 복합문양보다는 단독문양의 사용 빈도수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8) 온양민속박물관, 전게서 (1989).

9) 석주선기념박물관, 한국복식 9호 (1991).

〈표 6〉 출토직물의 문양 종류

문양		단독문양				복합문양			
		동물문	식물문	기하학문	雲紋	동물문+식물문	식물문+기하학문	雲紋+寶紋	기하학문+寶紋
능직물	제2기	0	0	0	0	1	1	0	0
	제3기	0	3	4	0	2	1	0	0
주자직물	제1기	0	0	0	0	0	0	2	0
	제3기	0	7	1	1	0	4	0	1
익직물	제3기	0	0	1	0	0	0	0	0
소 계		0	10	6	1	3	6	2	1
총 계		17				12			

것은 사찰직물의 경우와 같다¹⁰⁾. 그리고 단독문양 중에서 동물문이 사용된 것은 1점도 없으며 花紋, 당초문 등의 식물문양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그 다음으로는 작은 기하학 문양이 사용되었다.

그리고 2가지 이상의 문양이 조합된 복합문양에서는 식물문과 기하학문양이 함께 사용된 직물이 가

장 많았으며 그 외 동물문과 식물문, 雲紋과 寶紋, 기하학문과 寶紋이 조합된 경우가 있었다. 이 중에서 특히 慶州李氏 출토직물의 겹장의 걸감은 봉황, 당초, 모란, 연화, 보상화문 등 동물문과 식물문이 조합되어 한단씩 직문되어 있는데 문양이 마치 한쪽의 풍경화처럼 직조되어 있었다.

〈표 7〉 석주선 박물관 소장 출토직물에 나타난 문양의 종류

문양		단독문양					복합문양				
		동물문	식물문	기하학문	雲紋	寶紋	동물문+식물문	식물문+기하학문	雲紋+寶紋	기하학문+寶紋	寶紋+식물문
능직물	제1기	0	0	0	0	0	0	0	0	0	0
	제2기	0	0	2	0	0	0	0	0	0	0
	제3기	0	0	0	0	0	0	0	0	0	0
주자직물	제1기	0	8	0	5	3	0	0	6	0	3
	제2기	1	27	4	6	3	1	2	14	0	1
	제3기	0	0	0	1	0	0	0	0	0	0
익직물	제1기	0	1	0	0	0	0	0	0	0	0
	제2기	0	2	0	2	0	0	0	0	1	0
	제3기	0	0	0	0	0	0	0	0	0	0
중조직물	제1기	0	0	0	0	0	0	0	0	0	0
	제2기	0	6	0	0	0	0	0	0	0	0
	제3기	0	0	0	0	0	0	0	0	0	0
소 계		1	44	6	14	6	1	2	20	1	4
총 계		71					28				

10) 장현주, 권영숙, "조선 중·후기 사찰 견직물에 나타난 특성", 복식, 제51권 8호, (2001), p.10.

이상에서 살펴본 결과 출토직물에는 식물문의 단독문양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그 다음은 雲紋, 寶紋, 기하학문 등이 조합되어 사용되고 동물문양은 새 종류를 제외하고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표 7>은 석주선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조선시대 출토복식에 나타난 직물의 문양을 보고서의 기록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¹¹⁾. 앞의 <표 7>에도 역시 단독문양이 복합문양보다 훨씬 많이 사용되었으며, 단독문양 중에서는 식물문, 雲紋, 기하학문, 寶紋, 동물문의 순으로 식물문양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복합문양 중에서는 雲紋과 寶紋의 조합이 가장 많고, 그외 식물문과 寶紋의 조합, 식물문과 기하학문의 조합, 寶紋과 기하학문의 조합, 식물문과 동물문의 조합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동물문은 거의 사용되지 않았으며 이것은 본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그러므로 조선시대 출토 紋織物에는 2가지 이상의 문양이 조합된 경우보다는 小花, 大花 형태의 식물문양이 단독으로 사용된 경우가 가장 많으며, 동물문을 사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찰직물에서는 용 등의 상서로운 동물문과 복합된 형태로 동물문이 많이 사용되었지만¹²⁾ 출토직물에서는 봉황 등의 조류를 제외한 동물문양은 거의 사용되지 않았으며 그 빈도수도 극히 적으며 작은 화문 등의 식물문양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IV. 결론 및 요약

1. 본 연구에서 조사한 출토직물의 전체적인 비중이 평직물(51.43%) > 주자직물(24.29%) > 능직물(17.14%) > 익직물(4.29%) > 교직물(2.85%)의 순으로 평직물이 가장 많았다. 그리고 직물의 종류별로는 사찰직물과 마찬가지로 평직물의 紬와 주자직물의 紋緞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2. 조직 유형별로 살펴보면 먼저 평직물에는 紬, 絹, 縞의 3가지 유형이 있으며 이 중에서는 紬의 비중이 높았으며 縞의 비중은 극히 낮았다. 능직물에는 平地浮紋綾, 平地綾紋綾, 綾地綾紋綾의 유형이 있으며 이 중에는 綾地綾紋綾의 비중이 가장 높다. 그리고 익직물의 사용은 고려시대에 비해 훨씬 줄어들었고 또 사찰직물에 비해서도 훨씬 적은 비중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조사결과에서는 금사 및 색사를 사용한 다채로운 중조직의 특수직물은 1점도 없었으며 대부분의 출토직물에서도 극히 발견하기 어렵지만 간혹 출토 저고리의 끝동 등의 부분에 장식적으로 사용했음을 알 수 있었다.
3. 출토직물에서 평직물은 의복의 걸감 및 안감 등의 용도로 두루 사용되었음에 비해 능직물, 주자직물은 주로 걸감의 용도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불교행사 및 의식을 수행할 때 사용하는 장식적인 용도로 다양하게 사용되었던 사찰직물에 비하면 익직물 및 금사, 색사를 사용하여 제작하는 중조직 직물의 경우는 의복의 극히 일부분 혹은 적은 양만 사용했음을 알 수 있었다.
4. 문직물에는 2가지 이상 문양이 조합된 복합문양보다는 단독문양이 많이 사용되었으며 이 중에서도 특히 식물문양이 많이 사용된 점은 사찰직물의 경우와 유사하지만 출토직물에는 조류를 제외한 동물문양은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사찰직물에서는 용 등의 상서로운 동물문과 복합된 형태로 동물문이 많이 사용되었지만 출토직물에서는 봉황 등의 조류를 제외한 동물문양은 거의 사용되지 않았으며 그 빈도수도 극히 적으며 작은 화문 등의 식물문양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또 복합문양에서는 식물문과 기하학문양이 복합된 형태가 가장 많았다.
5. 본 연구는 직물의 소장지별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사찰 건축물의 특성에 이어서 출토 건축물의 특성에 대해서 고찰한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

11) 석주선기념박물관, 앞책(1988~1999). 보고서를 보고 정리한 것이므로 “紋緞”, “織金緞” 등의 직물명칭만 있고 구체적인 문양이 언급되지 않은 것은 본 표에서 생략함.

12) 장현주, 권영숙, 전개논문(2001), p.10.

서 조사한 실증적 자료만으로 전반적인 조선시대 출토 견직물의 특성을 논하기에는 객관성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되며 추후 여러 지역과 가문에서 출토된 견직물을 포함한 연구를 하여 추후 결과를 보충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참고문헌

권영숙, 이주영 (1995). 조선초·중기 여자 장의제도 - 임란전·후 출토유물을 중심으로 -. 부산대학교 가정대학 연구보고 제21집.

김영란 (1998). 중국 고대 織金綿繡와 金代衣裳, 민속학 연구 제5호.

광주민속박물관.(2000). 霞川 高靈 출토유물.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 민속박물관 (1988~1999). 韓國服飾 제 6~17호.

민길자 (1998). 세계의 직물. 한림원.

민길자 (1998). 전통옷감. 대원사.

민길자 (1995). 한국전통직물의 조직에 대한 고찰Ⅳ(緞

의 분류와 명명), 국민대학교 생활환경연구소 제1집.

심연옥 (1998). 중국역대직물. 한림원.

은양민속박물관 (1991). 1302년 阿彌陀佛腹藏物의 調査研究.

은양민속박물관 (1989). 京畿道 半月地域 安東金氏墳墓發掘 調査 報告書.

원희정, 장현주, 백영미, 최석철, 권영숙 (2000). 안동 태사묘 소장 고려후기 직물의 제작특성. 전통복식 학술총서 2.

임원경재지.

장현주 (1999). 조선시대 견직물 연구, 부산대학교 이학박사학위논문.

장현주, 권영숙 (2001). 조선 중·후기 사찰 견직물에 나타난 특성, 복식, 제51권 8호.

조선왕조실록.

충북대학교 박물관 (1987, 1988). 충북대학교 박물관 소장 출토유의 및 근대복식 논고 조사보고 제20, 22책.